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21세기 신성장동력 ICT+BT+CT 창업생태계 육성·도시형 첨단산업단지 캠퍼스내에... '전북형 창업허브 플랫폼' 기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1세기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ICT·BT·CT 등이 집적한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캠퍼스 내에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대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R&D센터, 지원시설 등이 어우러진 전북형 창업허브를 만들어 지역 발전의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 본교 구성원 및 실체체육관 일대의 유휴부지 3만 6,580㎡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 사업에 네이버(헬스부문)·KT·하림·IMI 등 180여개 기업이 함께한다.



올해 착수하는 1단계 산학연 혁신허브(연면적 22,300㎡) 건립 사업에는 510억원(국비 19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LH 240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 오픈을 목표로 문화콘텐츠, ICT, 바이오융복합을 중심으로 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소,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마련한다. 1단계 사업은 메타버스 중심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전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TOWN)과 연계해 미래 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 동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단계 사업은 2025~27년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R&D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조성해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한다. 2030년에 마무리하는 3단계 사업은 ECO복합단지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시설을 갖춰 직원들을 위한 워라벨 타운을 건설한다.

전북대는 이달 중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2026년에는 관련 분야 기업들 입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현장 실사, 종합 평가 등에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브리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김동원 총장은 "전북대가 축적한 창업중심대학, LINC 3.0, SW중심대학 등 노하우와 교육·연구 인프라, 주변 지원기관의 네트워크 등을 잘 결합해 전국 최고의 창업허브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학발전의 선순환 구조,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이와 관련해 전북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3개 부처가 공동 진행하는 2022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에 지난달 선정됐다.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를 내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는 올해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전북대·창원대가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적으로 뽑혔다. 전북대는 구성원 및 실체체육관 일

도내 이달 체육행사 '풍성'

전국 볼링·전국 태권도선수권·전국 남녀중고 펜싱선수권·익산 아쿠아 붐 챔피언십 시리즈 등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산)는 7월 20일부터는 닷새간 정음에서 제 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당구대회가 열리고, 21일부터는 익산에서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또한 30일부터 이틀간 익산에서는 2022 익산 아쿠아 BOOM 챔피언십 시리즈대회가 예정돼 있고,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도 2회(컬링·빙상)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도 중북부 분산개최로 치러지고 있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볼링, 테니스, 빙상)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산)는 7월 20일부터는 닷새간 정음에서 제 1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당구대회가 열리고, 21일부터는 익산에서 제50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남녀중고펜싱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 또한 30일부터 이틀간 익산에서는 2022 익산 아쿠아 BOOM 챔피언십 시리즈대회가 예정돼 있고, 청소년스포츠안전교실도 2회(컬링·빙상)에 걸쳐 진행된다. 이밖에도 중북부 분산개최로 치러지고 있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볼링, 테니스, 빙상)도 도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정은성 기자

찾아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

도교육청, 10월 18일까지 도내 중학교 77개교 대상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중3 학생들에게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일부터 '찾아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10월 18일까지 도내 중학교 77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과 소개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 특전 및 우수사례 소개 등이다. 직업계고 홍보지원단 및 직업교육담당 장학사가 직접 신청 학교를 방문해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

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기술 선진국으로 파견해 3개월 동안 현지에서 학습하면서 다양한 전공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촉진 및 직업역량 지원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꿈키움 성장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취업 후학습'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는 수능 응시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는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희망나래 장학금II'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4교, 특성화고 24교, 일반고 전문계열 4교 등 총 32개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공업·상업·가사계열 등으로 구분되며, 기계시스템 제어과·종자산업과·발산업과·반려동물과·미래자동차과·드론과·헤어미용과, 한방생명과과학 등 다양한 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역량

강화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기술 선진국으로 파견해 3개월 동안 현지에서 학습하면서 다양한 전공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촉진 및 직업역량 지원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는 꿈키움 성장지원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선취업 후학습'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는 수능 응시없이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고졸 후 학습자에게는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희망나래 장학금II'도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직업교육담당 장학사는 "찾아가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설명회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직업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아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변화·혁신 함께 노력하자”

서거석 교육감, 첫 직원조회 열고 교육철학 등 공유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5일 취임 후 첫 직원조회를 갖고 "새로운 시대정신,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린 이날 직원조회에는 분청 근무 직원 250여 명이 참석해 신입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교육감은 "어려운 시기에 전북교육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던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2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면서 잘된 점은 이어가고, 부족했던 점은 채우고 또 전혀 하지 못했던 일들은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초·기본학력 향상을 비롯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은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서 교육감은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등 외부기관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내부의 소통과 협치가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 부서 간 소통을 가로막는 벽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허물어야 하는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와의 소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교육감은 "교육의 3주체를 학생, 학부모, 교사라고 하는데 왜 직원은 빠져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교육의 4주체로 교육행정공무원인 '직원'을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이 5일 도교육청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취임 후 첫 직원조회를 갖고 "새로운 시대정신,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다른 어떤 요소는 다 배제하고 진정으로 전북교육을 위해 열정일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법률과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탁도 하고 중용도

하겠다"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성과를 공유하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학생 농촌봉사활동 3년만에 재개

농활 발대식 개최...입실군 일원 4개 마을에 83명 봉사활동



전북대 학생 농촌봉사활동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5일 학술문화관에서 김동원 총장을 비롯한 대학 보직자들과 농활에 참여하는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농촌봉사활동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전북대 총학생회 등 83명의 학생이 참여, 5~8일까지 입실군 일원 4개 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입실군 육산마을과 안하마을, 신기마을, 방축마을 등 4개 마을로 파견돼 마을 환경 정리와 작물 수확 등 부족한 농가의 일손을 돕는

다.이를 위해 전북대는 학생과 주관으로 사전에 학생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며, 봉사 기간 내내 학생들과 함께 농촌봉사활동 지역에 상주하며 현장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김동원 총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농촌 봉사활동이라는 당찬 도전에 나서서 전대인들과 함께 하겠다"며 "매우 기쁘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아픔을 모두 치유할 수 있겠다. 농촌의 현실을 이해하고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 선정

이달부터 2025년 2월까지·한국산업기술진흥원서 18억원 지원 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남찬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인재양성사업에 선정돼 2022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8억 원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가 2022년 부처 협업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대학 체질 개선과 특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선정에 따라 우석대학교는 바이오 및 신제품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무형 전문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환경 구축 △산업 특화 교육과정 개발 △산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프로젝트 학기제 및 인턴십 운영 △취업 지원 및 대학원 연계 등의 사

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우석대학교는 제약공학과와 약학과 등의 생명 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종근당과 한풍 제약, 진솔바이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과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을 통해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남찬현 총장은 "포스트 휴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대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바이오

헬스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우리 대학교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미경 기획처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급성장으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차세대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

도교육청, 실내 체육시설 포함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에 따라 일반인에게 사용을 제한했던 일선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역감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 실내체육시설까지도 전면 개방하도록 지침을 변경 안내한 것이다. 학교 체육시설 전면 개방은 서거석 교육감의 후보 시절 체육공약이었다. 서 교육감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위생과 일상 방역 등 이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지역감염상황 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개방을 결정했다"며 "변화하는 방학 체계에 맞춰 학교와 도민이 상생·동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설명회

전주대 지역혁신센터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소장 한동승)는 7일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의 주도하에 지역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구축했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존의 관 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이 주도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학계·기업 등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민·관·공 협업체계 구

축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소개 및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며 타 지역 플랫폼의 문제해결 사례소개를 통한 협업체계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설명회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오프라인은 전주대학교 대학본관 1층 124호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은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